

김돌산 심방 본풀이 채록

이공본풀이

네. 이공본풀이우다.

옛날 옛적 짐진국 대감님광 원진국 대감님이 삽데다. 원진국 대감님도 입장 갈림을¹⁾ 허고 짐진국 대감님도 입장 갈림 허연 살아가는다.

이십 스물이 넘고 삼십 서른이 되여도 애기가 엇어지난, 짐진국 대감님은 천하 아래 가난허고 원진국 대감님은 천하 거부제(巨富者)로 잘 살아지난,

흐를날은²⁾ 동계남 은중절(東觀音殿在寺) 서계남 금법당(西觀音金法堂) 낭계 상상(上) 메양³⁾ 올라, 한동절 부처 지컨⁴⁾ 대서님신디 원수륙(願水陸)을 가난,

짐진국은 가난허난, 갓영⁵⁾ 갈 거 엇이난 모음 정성, 몸 정성 찬물 한 그릇 정성을 험데다.

원진국은 천하 아래 거부제로 사난, 강납엔 강나룩,⁶⁾ 모납엔 모나룩, 초납엔 초나룩,⁷⁾ 가삭베도⁸⁾ 구만장 송낙베도⁹⁾ 구만장 염질(念珠) 목닥¹⁰⁾ 베 잘 출런.

낮인 원불 밤인 수륙 원불당(願佛堂)엔 원수륙 천불당엔 천수륙 만불당엔 만수륙 젓복제맛이 굿을 허난, 백 근을 채우난 원진국은 잘 출령 가도 제우리난¹¹⁾ 아흔아홉 근입네다. 짐진국은 못 살양 모음 정성 몸 정성 찬물 한 그릇 정성을 허여도 백 근을 찹데다.

이젠, 내려오단, 짐진국 대감님광 원진국 대감님이 허는 말이,

“웁서. 우리 수륙 드령 애기랑 낱건, 아들 톨 허민 사돈 허곡, 아들은 아들 허고, 톨은 톨허민 게로형제 허기가 어떻 험네까?”

“걸랑 기영 허렌.”

허영. 내려오난, 짐진국은 아들을 낱데다. 원진국은 톨을 나난, 혼 설 두 덜 열다섯 십오 세가 넘어가난, 현 약속도 잊어지난, 원진국 대감신디 사돈 허겐 허난, 가난허고 서난허난 사돈 안허켄 허난, 원강아미,

“아바지 나 시집 가쿠다.”

허연. 부베간(夫婦)을 삼읍데다.

부베간 삼으난, 사라도령 뉘난, 꽃감관 꽃생인 살레오렌 허난, 원강아민 애긴 베언

1) 입장갈림을: 혼인을.

2) 흐를날은: 흐룻날은.

3) 메양: 늘.

4) 지컨: 지킨.

5) 갓영: 가지고.

6) 강나룩: 발벼.

7) 초나룩: 찰벼.

8) 가삭베도: 승려의 옷을 만드는 천감인 배.

9) 송낙베도: 고깔을 만드는 천감인 배.

10) 목닥: 목탁

11) 제우리난: 저우리니.

태독(胎毒)같이¹²⁾ 불언. 나도 같이 가쿠덴 헤연. 꽃감관 꽃생인님광 밤낮 주야정천 걸
어가는디.

날은 정그난¹³⁾ 묵은각단¹⁴⁾ 새각단 밧디¹⁵⁾ 어욱폐기 의지헤연 앓앗구나. 밤은 깊영
동산새별 먼동 금동¹⁶⁾ 대명천지 붉는¹⁷⁾ 날이 뉘젠 허난, 천하(天下)독은¹⁸⁾ 목을 들루
고 지하(地下)독은 출기¹⁹⁾ 들런 쯤지반반 울어올 때 원강아민,

“사라도령님아, 사라대왕님아, 꽃감관 꽃생인님아, 저건 어디 독 소리펜”

허난,

“제인장제 만년장제 집이 독 우는 소리엔.”

허난, 어욱폐기 의지 허엿단 일어사명 손을 비엇구나. 어욱폐기 그루엔 덩체기엔²⁰⁾
별경허게²¹⁾ 피가 칠헤여지난, 어욱폐기 빨린²²⁾ 별경허는 법 마련허고,

“천연장제 만년장제 집이 강 날 풀아뉘 차비 노소 허영 갖다 읍서.”

허난,

“결랑 기영 허라.”

천연장제 만년장제 천연장제 집 강

“종이나 샅서.”

“큰똥애기야, 저 종 사느냐?”

“사질 맵서. 우리 집이 망혈 종이우다.”

“족은똥 애기야 저 종 사느냐?”

“사지 맵서. 우리 집이 신세 먹꿀 종이우다.”

족은똥 신디 간,

“저 종 사느냐?”

“아이고, 저 종 샅서. 어멍이랑 물하님으로 부리고 배에 애긴 나건, 아들랑 나건 장
남으로, 똥랑 낫건 물하님으로 부리는 게 어뎡 험니쎈.”

허난, 아방도 귀가 솔꽃허연.

“얼마를 받을티?”

허난, 어멍은 돈 벅냥을 받으쿠다. 아방은 벤 애긴 은 벅냥을 받으쿠다 허난, 돈 벅
냥에 은 벅냥에 사놓고, 우린 종광 한집 이별허젠 허민. 이별상을 출려 줍센 허난, 꽃
감관 꽃생인신디 원강아미,

“벤 애긴 나민 무시거엔 이름 생명 지으느넨?”

12) 같이: 같이.

13) 정그난: 저무니.

14) 은 각단: 오래된 띠.

15) 밧디: 밧에.

16) 금동: 금동(金東). 동쪽 하늘이 밝아옴.

17) 붉는: 밝는.

18) 천하(天下)독은: 천하 닳은.

19) 출기: 꼬리.

20) 덩체기엔: 큰 나무의 밑둥에는.

21) 별경허게: 빨강게.

22) 빨린: 뿌리는.

허난, 아들랑 낳건 한락궁이, 딸랑 낳건 한락덕이 이름생명 지어시렌 헤여두고, 상동낭 용열레기²³⁾ 반착 꺾언²⁴⁾ 본메로²⁵⁾ 갖언 반착씩 앓언 꽃감관 꽃생인 살레 꽃밭디²⁶⁾ 도올르고.

원강아민 그날 저녁 쯤을 자젠 허난, 제인장제 만년장제

“이 문 열라. 이 문 열라.”

“이 국에 법은 어찌 허는지, 우리 국에 법은 벤 애기 낳아 뒤사 몸 허락 험네다.”

벤 애기 난,

“이 문 열라. 이 문 열라.”

허여가난, 이 국에 법은 어찌 허는지, 우리 국에 법은 이 애기가 켁 능장(稜杖)대 짚엉 어르적적 밧을²⁷⁾ 갈아사 몸 허락을 험네덴 허난,

이 애기 켁, 어르적적 밧을 갈아 가난,

“이 문 열라. 이 문 열라.”

허여도 문을 아니 몰아 주난, 제인장제 뉘벌역(罰役)을²⁸⁾ 시겻구나. 어멍이랑 굽터 진 항에 물 질어 놓고 아덜랑 남천바리 허여오렌 허난, 그 벌역도 다 허엿구나.

흐를날은²⁹⁾ 부아가³⁰⁾ 나난, 조 혼섬 앓영 간 뿌려근, 오늘 고추일 멸망일(滅亡日) 하와일이난 강 다 담양 오렌 허난, 쯤씨 혼섬 빼연³¹⁾ 갈아두언 끄서귀로³²⁾ 꽃언 마무리 헤연 집이 오난, 오늘 멸망일 고추일 하와일이 뉘여지난 강 담양오렌 허난, 비세 곱이 울멍 밧디 강 보난, 장계염지덜³³⁾ 겨울 양석허젠 돈³⁴⁾ 모다 놓앗구나.

담안 오난, 혼 방울이 떨어졌저. 다시 재차가난 장계염지 쯤씨 혼 방울 물언 고망더 레 들어가젠 허난 가운데 간 바락허게 볼르난³⁵⁾ 멜록허게 바끄난³⁶⁾ 장귀통을 설련허 옹데다.³⁷⁾

뉘벌역, 이 벌역도 면신 시기난, 신산만산 한락궁인,

“어머님아, 콩이나 혼쯤 볶아 쯤서.”

콩장막 털언 콩을 볶으는디

“어머님아, 저 올레서 제인장제 불림수다.”

올레 가분 세에 남술이여³⁸⁾ 족박이여³⁹⁾ 비치락이여⁴⁰⁾ 다 곱저 두고,⁴¹⁾

23) 상동낭 용열레기: 상동나무 머리빗.

24) 반착 꺾언: 반으로 꺾어서.

25) 본메로: 증거가 될 사물.

26) 꽃밭디: 꽃밭에.

27) 밧을: 밧을.

28) 뉘벌역: 힘든 일.

29) 흐를날은: 하룻날은.

30) 부아가: 화가.

31) 빼연: 뿌려서.

32) 끄서귀로: 밧을 갈고 나서 바닥을 고르거나 다지는 도구.

33) 장계염지덜: 큰개미들.

34) 돈: 모두.

35) 볼르난: 밟으니.

36) 바끄난: 뺏으니.

37) 장귀통을 설련허옹데다: 장구를 마련합데다.

38) 남술이여: 남죽. 넓적 길쭉한 나무로 만든 죽젓개여.

“어머님아, 혼저 읍서. 콩 캄수게.”

아이고, 남박이여⁴²⁾ 족박이여 비차락 다 곱져부난 엇엇구나. 콩은 타탁 튀어가난,

“어머님아, 손으로라도 젓읍서.”

손으로 젓젠 허난 흘목에⁴³⁾ 솟창더레⁴⁴⁾ 눌렀구나.

“우리 아버지 누게꽈?⁴⁵⁾ 바른 말을 험셴.’

허난,

“이 손 노라. 이 손 노라.”

손을 놓으난, 느네 아버지 꽃감관 꽃쟁인 사라도령 살레 갓젠 허난,

“게건 어머님아, 죽어지고 데나, 나 간 곳을 곤지⁴⁶⁾ 말고 범벅 소금 짜게 놓앙 두 덩어리만 허여 줍서.”

“결랑 기영 허라.”

범벅 두 덩어리 허여 주난, 아방 좃앙 서천꽃밭디레 올라가느디 천리둥이가⁴⁷⁾ 좃아⁴⁸⁾ 온다.

“천리둥이야, 느도 종이여. 나도 종이여. 요거 먹영 어서 가불라.”

범벅 혼 덩어리 훑허게 데끼난 그 범벅 짤짤한 거 먹언, 물 먹으레 천리만씩 가부난, 천리만씩 돌아간다. 조끔시난⁴⁹⁾ 만리둥이 좃아오라 가는구나.

“느도 종이여. 나도 종이여. 나 물영 가봤자 종 팔져 면송 못허난, 요거 먹영 혼저 가불라.”

범벅 혼 덩어리 훑허게 데끼난 그 범벅 짤짤한 거 먹언, 물 먹으레 만리만씩 가분세에 만리만씩 돌아간다.

가단보난, 발등 친 물 잇엇구나. 야게⁵⁰⁾ 친 물, 존등⁵¹⁾ 친물, 야게 친물 잇엇구나. 수양청버드남섭이 보였구나.

수양청버드남 우에 강 올라앗안 닛급⁵²⁾ 썩션, 물을 닛급 썩션, 피착은 물더레 바까부난, 인간에서 열다섯 십오세 안내에 사발엔, 남박세기 사기 사발에 밥먹단 애기덜 물 잉어다근,⁵³⁾

서천꽃밭디 부제칩 애기덜은 늦사발에 물 잉어 강 물주민 번성 꽃 뒹고, 가난헌 집이 애기덜은 남박세기 물 질영⁵⁴⁾ 가당 사기 사발에 물 질영 가당 마이정당 쉼정당⁵⁵⁾

39) 족박이여: 조그마한 바가지여.

40) 비치락이여: 빗자루여.

41) 곱져 두고: 숨겨 두고.

42) 남박이여: 나무 박세기.

43) 흘목에: 손목에.

44) 솟창더레: 솟창에.

45) 누게꽈: 누구입니까.

46) 곤지: 말하지.

47) 천리둥이: 개이름.

48) 좃아: 쫓아.

49) 조끔시난: 조금 있으니.

50) 야게: 모가지.

51) 존등: 잔등이.

52) 닛급: 이빨.

53) 잉어다근: 이어다가.

발을 걸린 물 못주민 인간더레 돌아상

“나 난 어멍 나 난 형제간 우리 남박세기 값 보내어 줍서. 은둥이 값 보내어 줍서.”

비세굴이 올라가민 송엄도⁵⁶⁾ 뉘고 피착은 물더레 뿌려부난 검뉴울꽃이⁵⁷⁾ 뉘어가난, 꽃감관 꽃생인 궁예청 신예청 아랫 정고리⁵⁸⁾ 후려가난, 수양청버드남섭 우이 무지력 총각이 앓안 닛굽 쑤션 물러레 바까부난 핏물이 뉘연 꽃은 검뉴울꽃이 뉘염수덴 허난, 꽃감관 꽃생인 나오란

“너는 누게가 뉘느냐?”

허난,

“우리 아버지 좃안 오랏우다.”

“느네 아바진 누게고?”

우리 아바진 꽃감관 꽃생인 뉘네덴 허난,

“본메본짱⁵⁹⁾ 잇겠느냐?”

“잇입네다.”

상동냥 용얼레기 내어주난, 꼭허게 맞앗구나. 남리에 은둥에 초동에 물을 떠 상손가락에 피를 짠 물러레 뱅뱅 돌단 합수가 뉘엇구나. 아방 아들 분명허엇구나.

“설운 애기야, 오단 보난 필아곡절(必有曲折) 허는 일 엇어넨.”

허난, 발등 친 물 잇입디다. 존등 친 물 잇입디다. 야게 친 물 잇입디덴 허난

“느네 어멍, 느 이레⁶⁰⁾ 와부난 초대김⁶¹⁾ 이대김 삼대김 받은 물이여.”

아이고 설운 애긴 서천꽃밭 들어간 피 오를 꽃 솔 오를 꽃 심장 오를 꽃 말 굴을 꽃 즈근즈근⁶²⁾ 타고,

“멸망악심(滅亡惡心) 제인장제 집이 강 시겨불라.”

수레멸망악심⁶³⁾ 내어주엇구나. 이젠 내려오단 보난, 천연장제 만년장제 죽이젠 허난,

“나 좋은 재주 베왕 오랏이난, 나 재주 보양 죽입서.”

“일가방상 제줏간 다 모입서.”

일가방상 다 모이난, 싸움 혈 꽃 내어 놓안 와글와글 흔들어 가난, 니 머리 내 머리 싸움발악 허엇구나. 검뉴울꽃 내어 놓안 와글와글 흔들어 가난, 노릇노릇 다 죽엇구나. 장방⁶⁴⁾ 알로⁶⁵⁾ 나오멍 제인이 죽은뜰 아이고,

“상전님아, 날 살려줍서.”

54) 질영: 길어서.

55) 마이정당 쉼정당: 땡땡이 덩굴의 한 가지.

56) 송엄도: 흉도.

57) 검뉴울꽃이: 시든 꽃.

58) 정고리: 아랫도리.

59) 본메본짱: 증거가 될 만한 사물.

60) 이레: 여기.

61) 초대김: 첫 번째 다짐.

62) 즈근즈근: 자근자근.

63) 수레멸망악심: 사람을 죽여 멸망시킴.

64) 장방: 상방 구석에 그릇을 놓게 만든 공간.

65) 알로: 아래로.

“느가 상전이주. 나가 상전이냐?”

“오라바님아, 날 살립서.”

“어평헌 느네 오라방인고. 우리 아방이 느네 어멍신디 가 가나시냐, 우리 어멍이 느네 아방신디 가시냐.”

경 헤여도 우리 어멍 간 곳이나 골렌⁶⁶⁾ 허난,

두에 신돛박낭⁶⁷⁾ 아래, 청대 고대 아래 문엇수덴 허난, 어머님 신첸 보난, 왕대 죽대 몸으로 깨어지언 다 나오랏구나.

어머님, 빼 강골 슬 강골 조근조근 좃영 죽냥 막대기 삼세번 피오를 쫓 슬 오를쫓 오장육부 간담 오를 쫓 놓안. 부모신디 메 허는 건 불흠니덴만은 살아납센 허연 때리는 맵네덴 허연. 삼시 번⁶⁸⁾ 후리난⁶⁹⁾ 와들랭이⁷⁰⁾ 살아나난, 어머님 누워난 흠인들 내 불리야. 복복허게 꺾여근⁷¹⁾ 방울방울 고리동벽 안동벽,⁷²⁾ 굿 혈 때엔 소가칩인 앓은 제엔 고리동벽 일곱 개, 소당클 메영 굿 혈때엔 열니 방울, 심방칩인 스물여덟 방울 마련허는 법. 신가심, 굿 헤어나민 두 개로 반듯이 열리는 건 신가심 열리는 법입네다. 애기방울 방울방울 조순덜 그늘라주고⁷³⁾ 번성 시겨주는 법입네다.

이거, 어머님은 저싱 유모어멍 마련허고, 아바진 저싱 쫓밭 쫓감관 쫓쟁인 마련허고, 아들은 신산만산 한락궁인, 아미처서(差使)를 마련허영 제인장제 족은똥 애기 돌양가부난 아미처서 마련허영. 이공서천 도산국 난산 본산국 과광성 신틀엇습네다.

66) 골렌: 말하라고.

67) 신돛박낭: 동백나무.

68) 삼시번: 삼세번.

69) 후리난: 때리니.

70) 와들랭이: 벌떡 일어나는 모양.

71) 꺾여근: 꺾여서.

72) 고리동벽 안동벽: 쌀로 만든 방울 모양의 떡.

73) 그늘라주고: 돌봐주고.